



# EAI 여론브리핑 제28호

WPO • EAI • 경향신문 공동

UN인권선언 채택 60주년 기념 “국제인권의식여론조사”

WORLDPUBLICOPINION.ORG

## 제5차 “언론의 자유, 쟁점별 국제인식 해부”

대표집필 : 정한울 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참여국가 : 20개국]

유럽 러시아 영국 우크라이나 **폴란드** 프랑스  
아시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북남미 미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중동 아제르바이잔 **요르단** 이란 터키 팔레스타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이집트

(파란색은 이번 발표에서 새로 추가된 국가)

※ 이번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20개국 18,122명 응답자의 데이터 분석결과를 소개한다.

※ 조사일시 : 2008년 1월~2월 / 한국조사 “한국리서치”

### [발표 주제]

1. 언론 자유의 정당성 공감 크지만 각국 언론자유 만족도에선 나라별로 의견 갈려
2. 핵심 쟁점에 대한 국제인식 : (1) 인터넷 통제 (2) 이적표현물 유통 (3) 정부통제
3. 한국인의 언론자유 인식 : 언론자유 불만족 크고, 교육수준에 따라 인식 차 커

### [발표계획]

| 차수 | 한국발표    | 주제             | 비고                     |
|----|---------|----------------|------------------------|
| 1차 | 3월 8일   | 인권1. 여성권과 양성평등 |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          |
| 2차 | 3월 20일  | 인권2. 중국의 대티벳정책 | 6개국 조사                 |
| 3차 | 3월 22일  | 인권3. 인종차별      | 3월 21일 국제 인종차별 철폐의 날   |
| 4차 | 4월 21일  | 현안1. 오일쇼크의 위협  | 국제유가 폭등                |
| 5차 | 5월 1일   | 인권4. 언론의 자유    | 5월 3일 세계 언론자유 날        |
| 6차 | 5월 둘째 주 | 현안2. 중동 분쟁 인식  | 정부구성과 운영에서의 민주주의 실현    |
| 7차 | 5월 셋째 주 | 현안3. 민주주의와 여론  | 민주주의와 정책결정에서 여론의 역할    |
| 8차 | 6월      | 인권5. 고문의 인권침해  | 6월 26일 세계 고문 희생자 지원의 날 |
| 9차 | 미정      | 현안3. 국제위협과 리더십 | 세계 주요 지도자 평가/중동평화와 UN  |





## 프로젝트 개요

“미국 매릴랜드 대학의 국제여론조사 연구기관인 국제정책태도프로그램(PIPA)이 운영하는 월드퍼블릭오피니언(<http://www.WorldPublicOpinion.org>) 프로그램은 유엔고등인권판무관 (UNHCHR)의 협조 아래 유엔인권선언 채택 6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인권의식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국제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 이숙종 성대 행정학과 교수, <http://www.eai.or.kr>)과 경향신문(<http://www.kyunghyang.com>)은 한국 측 조사주관 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든 인권 문제 관련 국제여론조사로서 인권 및 여러 국제현안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을 다른 나라 국민들과 비교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UNHCHR(유엔고등인권판무관)의 요청에 따라 주요결과는 UN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이 정한 인권 관련기념일들에 즈음하여 주제별(양성평등/인종차별/언론의 자유/고문/낙태/정치적 민주주의 성숙도)로 순차적으로 발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권관련 주제 외에도 국제현안(석유에너지 자원/ 세계 및 지역별 지도자 리더십 평가/ 각국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여론의 역할/중동평화와 유엔의 역할/새로운 핵 폐기 국제규약 창설에 대한 입장/ 중국과 티벳)에 대한 국제여론도 소개한다.

2008년 3월 7일

경향신문

EAI 여론분석센터 국제인권의식조사 연구팀

## 한국조사 개요

- 전체기획 : 월드퍼블릭오피니언(WorldPublicOpinion.org Network)
- 한국기획 : 동아시아연구원(EAI) • 경향신문
- 실 사 : 한국리서치
- 조사일시 : 2008년 2월 10일~11일
- 조사대상 :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남녀(2006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제주 제외)
- 표 본 : 600명
- 표본추출 : 계층화된 무작위 추출(Stratified Random Sampling)
- 표집오차 : 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표집오차 ± 4.0%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 가 중 치 : 지역(권) • 성별 • 세대 가중치 부여
- 연 구 팀
  - 연구팀장 : 이내영(EAI 여론분석센터 소장, 고려대 교수)
  - 연 구 팀 : 이숙종(EAI 원장, 성균관대 교수) • 서상민(EAI 연구기획국장)
  - 이근수(EAI 선임연구원)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 간 사 : 곽소희(EAI 연구원)

관련문의 : 정한울(EAI 여론분석센터 부소장) 02-2277-1683(내선102)



## 주제1. 세계인의 언론자유 인식

### □ 세계인 열 명 중 여덟 명이 언론자유 중요성 공감(81%)

- 5대륙 20개국 18,122명, 언론자유 공감 81% “매우 중요” 52%, “약간 중요”29%
- 미국, 영국 등 선진국, 한국·중남미 3세대 민주화 국가, 중국에서 공감 높고,
- 이슬람 국가와 신생 독립국가연합 국가, 인도에선 언론자유 체감도 떨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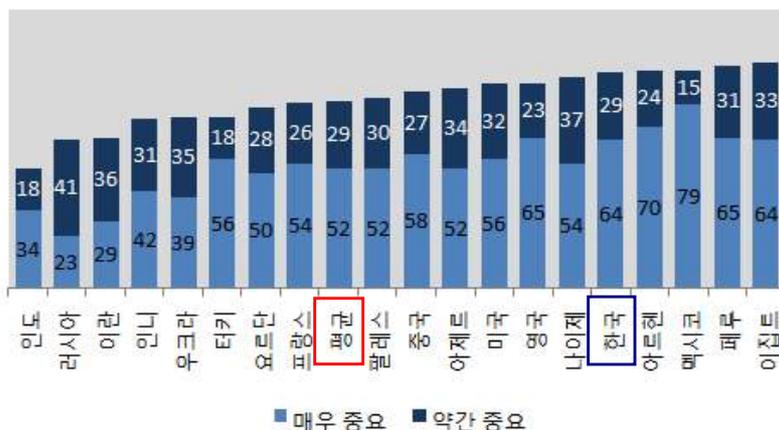
5월 3일 국제언론자유 날(International Press Freedom Day)을 맞이하여 WPO(월드퍼드릭오피니언)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20개국 18,122명의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한국에서는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이숙종 성균관대 교수)과 경향신문이 참여했다. 조사결과 세계인의 열 명 중 여덟 명은 언론자유 중요성(매우 중요+ 약간 중요)을 체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답한 응답만 보더라도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52%)를 넘어 언론 자유 및 독립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88%), 미국(88%) 등 1세대 민주주의 국가들을 비롯하여 페루(96%), 멕시코(94%), 아르헨티나(94%) 등의 중남미 국가들과 한국(93%) 등 3세대 민주화국가에서 언론자유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컸다. 경제개방과 자유화가 심화되고 있지만 정치적 자유화에 대해 경계심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85%(매우 중요 58%+약간 중요 27%)에 달했다는 점은 주목할만 하다.

터키(74%), 인도네시아(73%), 이란(64%)과 같은 이슬람 국가나 우크라이나(74%)나 러시아(64%)와 같이 구소련에서 독립한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 인도(52%) 등에서는 언론자유 중요성에 대한 공감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도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체제와 종교, 지역을 넘어 언론자유 가치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그림1]

[그림1] 언론자유 중요성에 대한 공감(%)





주1: 1. 전혀 중요하지 않다 2. 별로 중요하지 않다 3. 약간 중요하다 4. 매우 중요하다 중 3과 4 응답비율  
주2. 폴란드에서는 조사하지 않음

□ 자국의 언론자유 수준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미온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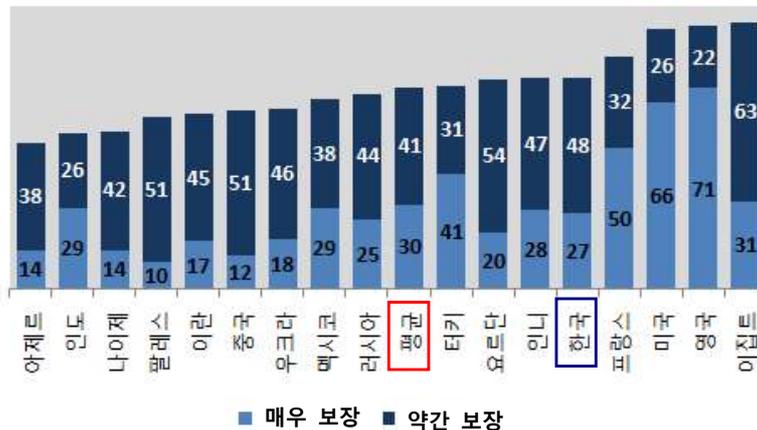
- 전체 응답자, “언론자유 매우 보장” 30%, “약간 보장되고 있다” 41%에 그쳐
- 서구 3개국만 과반수 이상이 “매우 보장된다” : 영국 71%, 미국 66%, 프랑스 50%
- 인도 29%, 인도네시아 28%, 한국 27%, 중국 12%만이 “언론자유 매우 잘 보장”

언론자유 중요성에 대한 세계적 차원의 높은 공감대에 비해 자기나라의 현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평균을 보면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은 30%에 그쳤고, “약간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이 41%에 달했다. “별로 잘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이 19%, “전혀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는 응답은 5%였다.

영국, 미국, 프랑스 등 근대 민주주의를 선도해온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를 매우 잘 누리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영국 국민의 71%, 미국 국민의 66%, 프랑스 국민의 50%가 자기나라의 언론자유 수준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외 나라들에서는 “약간 보장되고 있다”는 미온적인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언론의 자유가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는 평가는 30%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아시아 국가/ 독립국가연합/이슬람 등 비 서구 민주국가나 정치적 민주화와 거리가 있는 국가들에서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만족스러운 평가를 내리는 응답자가 소수에 불과했다. 인도 29%, 인도네시아 28%, 한국 27%, 중국 12%만이 자기나라 언론자유 현실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러시아(25%), 우크라이나(18%), 아제르바이젠(14%) 등 구소련 연방에서 탈퇴하여 1990년대 정치적 자유화 대열에 동참했던 독립국가 연합 소속 국가들에서 자국의 언론자유 수준에 대한 만족스러운 평가가 매우 낮았다.

[그림2] 자국 언론자유 수준 평가



주1. 1. 매우 잘 보장 2. 약간 보장 3. 별로 잘 보장되지 않는다 4. 거의 보장되지 않는다 중 1과 2 응답자 합한 비율  
주2. 폴란드, 아르헨티나, 페루에서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 언론자유에 대한 미온적 평가는 언론자유 확대 요구로 이어져

- 자국 언론자유에 대한 만족도 높은 국가, 언론자유 확대 필요성 못 느껴  
“언론자유 확대해야” 미국 25%, 영국 25%, 프랑스 43%에 그쳐
- 언론자유 미온적 평가했던 멕시코 75%, 중국 66%, 한국 65%, 인도네시아 53%가 확대
- 이슬람국 • 인도 • 러시아 등은 자국에 대한 평가 미온적이면서도 큰 변화 기대치 않아

조사결과는 자기나라 언론의 자유를 높게 평가하느냐 낮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언론자유에 대한 정책적 태도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기 나라에서 언론의 자유가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던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는 “언론자유 확대해야 한다” 응답이 각각 25%, 25%, 43%에 그쳤다.

반면 자국의 언론자유 수준에 대해 미온적인 평가를 했던 멕시코(75%), 중국(66%), 한국(65%), 인도네시아(53%)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대로 이들 국가에서 “현상유지 해야 한다”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과반수에 크게 못 미쳤다.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 중에서는 아제르바이젠 국민들이 언론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57%로 높게 나타났다.

이들 언론자유 확대 정책에 적극적인 국가들의 경우 현재의 언론자유 수준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이를 보장하라는 사회적 압력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의 경우 공산당과 당국에 의해 높은 수준의 언론통제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과 인민들의 언론자유에 대한 높은 기대가 상호 충돌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다만 자국 언론자유에 대한 평가가 미온적이었던 국가들 중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구소련 소속 국가 일부와 이란, 터키 등의 이슬람 국가 일부에서는 언론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그다지 높지 않았다. 이는 이들 국가에서 언론통제 이슈가 부각되고 해소되기까지 상당기간 잠복기를 거칠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케 한다.

[그림3] 언론자유 정책에 대한 입장 “확대해야 한다”(%)



주1. 1. 언론의 자유 확대해야 한다 2. 축소해야 한다 3. 현상유지 한다 중 1번 응답 비율.  
주2. 아르헨티나, 폴란드에서는 조사하지 않음



## 주제2. 언론자유 관련 3대 쟁점에 대한 인식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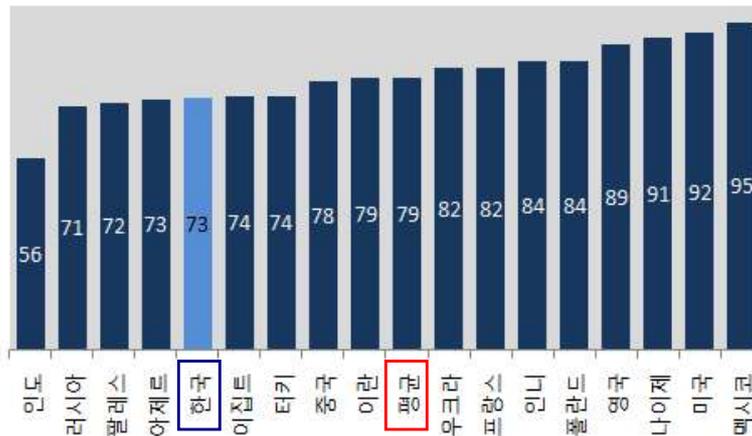
- (1) 이적표현물 허용 여부
- (2) 인터넷 접근 통제
- (3) 정치 안정 위한 언론 통제

### 쟁점1. 이적표현물(적대국출판물) 허용 대 허용 반대 : 허용해야 79% VS 허용 말아야 14%

세계적 차원에서 언론의 자유 문제와 관련하여 논쟁이 되고 있는 쟁점들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을 살펴보면 사안에 따라 강도는 다르지만 언론의 자유라는 대명제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우선 이적표현물(적대국의 출판물)을 읽을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무려 79%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출판물에 대한 검열이 아직 남아 있는 중국에서조차 응답자의 78%가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언론자유에 대해 미온적인 인도 국민 중에서도만 56% 허용해야 한다고 답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다소 낮았다.

다만 국가보안법 논란이 아직 지속되고 있는 한국에서도 적대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북한 출판물에 대한 접근을 자유롭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73%였고, 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26% 였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및 민주정부 초기에 북한 서적의 소지 혹은 단순 탐독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의 대상이 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격세지감을 느끼게 해주는 결과이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반공’, ‘반북한’, ‘안보’의 가치 실현을 인권에 우선하는 지상명제로 삼는데 큰 거부감이 없었다.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사상 및 언론출판의 자유라는 민주적 가치 실현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결과이다.

[그림1] 이적표현물(적대국 출판물) 허용 여부: “허용해야 한다”(%)



주1. 1. 허용해야 한다 2.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중 1번 응답 비율

주2. 아르헨티나, 요르단, 페루에서는 조사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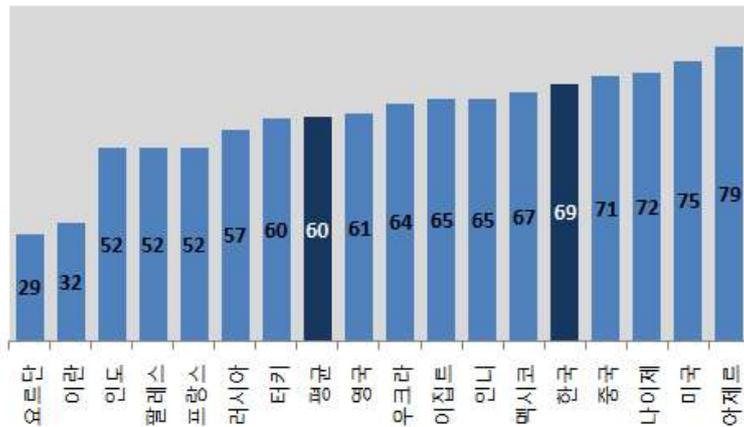


**쟁점2. 인터넷 접근 무제한 허용 대 통제 허용 : 무제한 허용 60% VS 정부통제 허용 32%**

한편 최근 전 세계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정부에 의한 인터넷 통제를 허용할 것인가 여부에 정부의 통제에 대해 반대하는 세계여론의 목소리가 크다. 적대국 출판물의 유통을 보장해야 한다는 79%의 응답비율에는 못 미치지만 무려 응답자의 60%가 콘텐츠의 유해여부와 상관없이 정부가 인터넷을 통제하는 것에 반대했다.

또한 인터넷 접근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보여준 국가별 응답패턴과 다른 결과들이 나타난다. 무엇보다 언론자유 관련 이슈들에 대해 미온적이던 독립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에서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이다. 아제르바이젠 국민의 79%가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국민들 역시 각각 64%, 57% 인터넷에 대한 무제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당국에 의한 인터넷 통제 관행이 지속되는 중국에서도 응답자의 71%가 정부에 의한 인터넷 통제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언론·사상의 자유에 대해 매우 진보적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에서 인터넷 통제에 반대하는 여론이 52%에 그친 점도 이색적이다.

[그림2] 정부에 의한 인터넷 접근 통제에 대한 입장 : 반대(%)



주1. 모든 국민이 아무런 제약 없이 인터넷 모든 내용을 접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터넷의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접근을 막을 수 있다 중 2번 응답 비율.

주2. 아르헨티나, 페루, 폴란드는 조사하지 않음

**쟁점3. 언론자유 대 정치안정 : 언론자유 우선 56% VS. 정치안정 위해 언론통제 가능 36%**

언론의 자유라는 가치를 제약해 온 정책들의 대부분은 정치적 안정이라는 명분에 의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조사 결과 정치적 안정을 명분으로 언론의 자유가 제약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세계인들은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언론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부의 통제 없이 자유롭게 뉴스와 아이디어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56%가 동의했다. 반면 정치 불안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언론보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37%만이 동의했다.



언론의 자유와 관련한 제반 이슈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를 보여준 미국 국민의 71%, 프랑스 국민의 70%, 영국 국민의 69%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정부의 언론통제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한국 국민 역시 미국과 같은 72%가 정부의 언론통제 없이 자유롭게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타 국가들을 살펴보면 이슬람국가인 요르단, 인도네시아, 이란이나 러시아, 아제르바이젠 등 구소연방 소속 국가들에서 정치불안의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의 언론보도 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정국불안이 잦은 국가들에서 정치안정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희생할 수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국민들 역시 정국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언론보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 42%로 세계 평균 36%를 상회했다. 어떠한 경우든 정부가 언론보도를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 53%였다. 조사결과 언론의 자유에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과 필요성을 제기한 중국 국민들이지만 이러한 인권가치의 확대가 중국정치의 불안정을 심화시키거나 궁극적으로 중국정치체제에 충격을 주는 것에는 적지 않은 우려가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3] 정치안정을 위한 정부의 언론통제 입장 : 반대(%)



주1. 1. 언론은 정부의 통제 없이 뉴스와 아이디어를 전파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치불안을 유발할 경우 정부는 언론보도를 막을 수 있다 중 1번 응답 비율.  
2. 아르헨티나에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음

### 주제3. 한국인의 언론자유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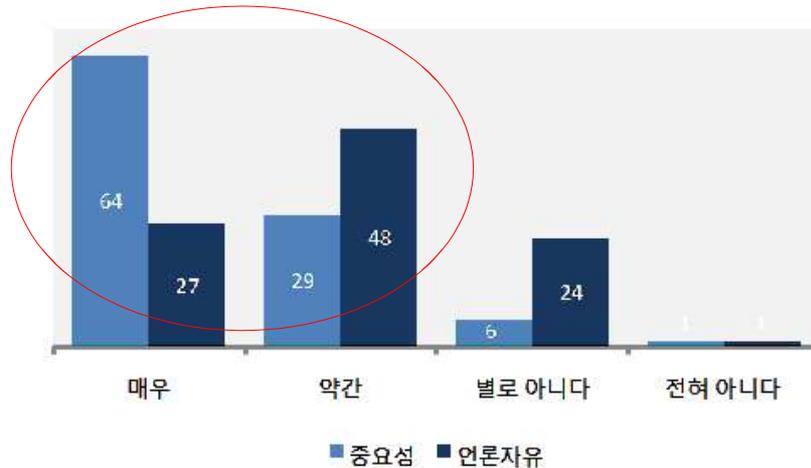
- 언론자유 중요성 인식 높고, 고르다
- 한국 언론 자유 수준에 대한 부정적 평가, 국제사회의 평가는 높아
- 한국 언론의 자유 확대 요구 높아

한국인의 언론자유에 대한 인식은 선진국 수준이다. 응답자의 64%가 “매우 중요한 문제”라



고 답했고, 29%는 “약간 중요하다”고 답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8%,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재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27%에 불과한 반면 “약간 그렇다”는 미온적인 응답이 48%로 뒤를 이었다. 즉 한국 사람들은 언론자유 중요성에 공감하지만 이를 잘 보장하지 못하는 한국현실에 대한 상대적 불만이 크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1] 한국인의 언론자유 중요성 인식과 한국의 수준 평가 사이의 격차(%)



#### □ 국제사회의 한국 언론자유 평가는 긍정적

[그림2] 국경 없는 기자회 2007 언론자유지수

자신의 평가와는 달리 국제사회는 한국사회가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수준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국경없는 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 [www.rsf.org](http://www.rsf.org))가 2007년 세계 169개국 대상으로 분석한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39위로 이번 조사국 중 영국(24위), 프랑스(31위)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49위)에 비해서도 상위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 REPORTERS WITHOUT BORDERS

World Press Freedom Index 2007 - The rankings

| Rank | Country                    | Note  |
|------|----------------------------|-------|
| 1    | Iceland                    | 0,75  |
| -    | Norway                     | 0,75  |
| 3    | Estonia                    | 1,00  |
| -    | Slovakia                   | 1,00  |
| 5    | Belgium                    | 1,50  |
| -    | Finland                    | 1,50  |
| -    | Sweden                     | 1,50  |
| 8    | Denmark                    | 2,00  |
| -    | Ireland                    | 2,00  |
| -    | Portugal                   | 2,00  |
| 11   | Switzerland                | 3,00  |
| 12   | Latvia                     | 3,50  |
| -    | Netherlands                | 3,50  |
| 14   | Czech Republic             | 4,00  |
| 15   | New Zealand                | 4,17  |
| 16   | Austria                    | 4,25  |
| 17   | Hungary                    | 4,50  |
| 18   | Canada                     | 4,88  |
| 19   | Trinidad and Tobago        | 5,00  |
| 20   | Germany                    | 5,75  |
| 21   | Costa Rica                 | 6,50  |
| -    | Slovenia                   | 6,50  |
| 23   | Lithuania                  | 7,00  |
| 24   | United Kingdom             | 8,25  |
| 25   | Mauritius                  | 8,50  |
| -    | Namibia                    | 8,50  |
| 27   | Jamaica                    | 8,63  |
| 28   | Australia                  | 8,79  |
| 29   | Ghana                      | 9,00  |
| 30   | Greece                     | 9,25  |
| 31   | France                     | 9,75  |
| 32   | Taiwan                     | 10,00 |
| 33   | Spain                      | 10,25 |
| 34   | Bosnia and Herzegovina     | 11,17 |
| 35   | Italy                      | 11,25 |
| 36   | Macedonia                  | 11,50 |
| 37   | Japan                      | 11,75 |
| -    | Uruguay                    | 11,75 |
| 39   | Chile                      | 12,13 |
| -    | South Korea                | 12,13 |
| 41   | Croatia                    | 12,50 |
| 42   | Romania                    | 12,75 |
| 43   | South Africa               | 13,00 |
| 44   | Israel (Israeli territory) | 13,25 |
| 45   | Cape Verde                 | 14,00 |
| -    | Cyprus                     | 14,00 |

#### □ 한국 언론을 규제하는 이중의 간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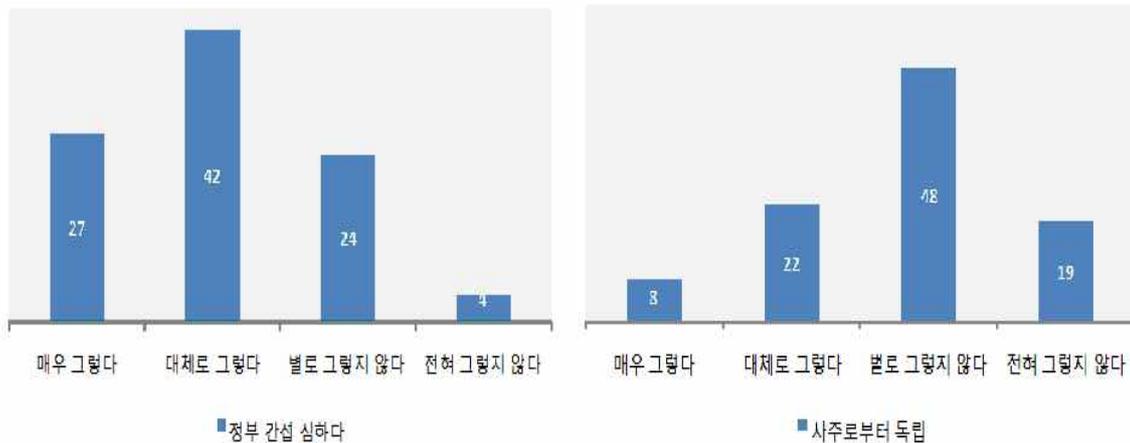
그동안 이번 조사 결과 뿐 아니라 동아시아연



구원이 지금까지 조사한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2006년 동아시아연구원이 영국 BBC 방송과 로이터 통신이 주관하는 국제여론조사 컨소시엄에 참여하여 진행한 10개국 언론신뢰도 국제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국 언론이 정부의 간섭과 사주의 간섭이라는 이중의 간섭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첫째, 한국인들은 한국언론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2006년 자료를 보면 “한국 정부는 언론매체에 지나치게 간섭 한다”는 진술에 대해 매우 그렇다 27%, 대체로 그렇다 42%로 총 69%의 응답자가 언론매체에 대한 정부간섭을 기정사실로 이해하고 있다. 둘째, 한국인들은 언론사 사주로부터의 간섭에 의해서도 언론의 자유는 훼손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언론인들은 언론사주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뉴스를 보도할 수 있다”는 진술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8%, 대체로 그렇다는 응답은 22%로 사주 간섭으로부터 자유롭다는 평가는 불과 30%에 불과했다. 반면 별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48%,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9%로 총 67%의 응답자는 언론인들이 언론사 사주로부터 자유롭다는 주장에 부정적이었다.

[그림3] 언론자유 제약하는 2종의 간섭



주1. 자료 출처 : 2006년 BBC/로이터통신/동아시아연구원 공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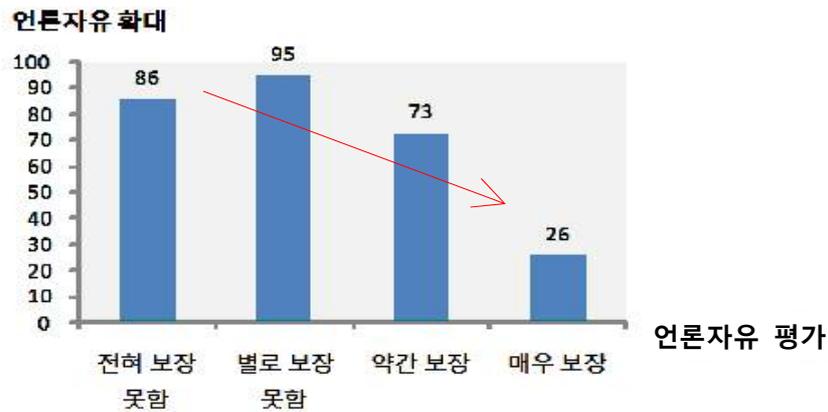
### □ 한국언론 현실에 대한 불만이 언론자유 확대 요구로 이어져 -젊은 세대/ 고학력층에서 언론자유 확대 요구 높아

결국 한국언론 현실에 대한 불만이 언론자유 확대 요구로 이어지며, 반대로 한국 언론 자유의 현실에 만족도가 높으면 현상유지 혹은 축소요인이 높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한국 언론 자유의 현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에 비해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하는 사람일수록 언론의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언론자유에 대한 평가에서 약간 보장되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서 언론자유 확대를 요구한 비율은 73%였던 반면, 매우 잘 보장되고 있다고 평가한 사람들 중에서 언론자유 확대를 요구한 비율은 26%로 크게 급강한다. 언론의 자유가 별로 보장이



안 되고 있다고 보거나 전혀 안되고 있다고 평가한 부정적 응답층에서는 언론자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86~95%에 달했다.

[그림4] 한국 언론자유도 평가에 따른 언론자유 확대 요구 비율(%)



또한 주목할 점은 한국에서 언론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집단은 세대별로 보면 2030세대에서, 학력층으로 보면 고졸 및 대재 이상의 층에서 주로 발견된다. 특히 세대별 격차보다는 학력별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세대로 보면 5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언론자유를 확대하자는 여론의 비율이 58%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20대(68%), 30대(74%)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응답층에서 겨우 47%만이 언론 자유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고졸응답자와 대재 이상의 응답자 층에서는 66~67%가 언론 자유의 확대를 요구했다.

결국 언론 중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언론을 바라보는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 스스로 특히 젊은 세대와 고학력 층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제약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이들 계층을 중심으로 정부 및 사주라는 이중의 간섭으로부터 언론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사회적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5] 세대별 • 교육수준별 언론의 자유 확대 요구 비율(%)

